

“기자님, 제 성별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1년여 통화로만 소통했던 그를 처음 만났다. 트랜스젠더로 살아내며 받은 상처와 위로, 성장을 그는 담담히 전했다.

“기자님, 제 성별을 어떻게 알고 계
세요?”

핑했다. 빠르게 머리를 굴려도 적
절한 답변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 네 그
게 제가 생각해보지 않아서요...” 말도
안 되는 답을 했다. 지역의 한 대학 교수
를 취재하다 알게 된 그는 1년여 얼굴을
보지 못한 채 통화로만 소통하던 취재원
이었다. 대선을 앞두고 20대 여성·남성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던 시
기, 그가 떠올랐다.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
생에게 듣고 싶은 말이 많았다. 그에게 인
터뷰를 요청하며 고려한 건 여성과 남성
의 비율과 지역, 직업의 형평성이었다. 그
의 성별을 두고 고민한 적이 없었다. 목소

리에서 느끼는 대로 당연히 ‘남성’ 이라
결론지었다.

“제가 생물학적 성별은 남성이지만
정체성은 여성이려서요.”

조심스럽게 어쩐지 미안해하는 듯
한 그의 목소리에 스스로를 자책했다. 그
제야 그의 프로필을 찾아봤다. 원피스를
입고 벚꽃 아래 수줍게 웃는 사진이었다.
카카오톡 프로필이라도 확인해볼걸... 전
화와 문자메시지로만 소통하던 게 후회됐
다. 아니지, 이런 자책이 무슨 소용인가.
목소리로 성별을 단정한 내 한계였다.

그는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회적으로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라고,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를 남성이라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않는) 가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많은 수치와 모욕에서 벗어나려 가족과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다고. 성인 트랜스젠더가 미성년 트랜스젠더에 비해 권력을 지닌 거 같다고. 자신의 소수자성을 인지하되 커밍아웃하지 못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기자 생활 만 9년차,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서 보냈다. 그동안 비교적 많은 삶을 만났다고 자부했다.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는 곡절을 취재하기도 했고 성소수자 인터뷰를 한 것도 여러 번이었다. 무엇보다 성소수자인 친한 친구들이 있었다. 누군가의 삶을 온전히 이해한다고 할 수 없지만,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귓가에 들리는 목소리로 선불리 상대의 성을 재단한 오만함, 편견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부끄러웠다.

‘서울에 올라올 일이 있으면 꼭 연락 줘요’ 라는 말을 그는 고맙게도 기억해줬다. 5월의 어느 날 저녁, 그와 만났다. 식당 앞, 원피스 차림의 그를 한눈에 알아봤다. 혹시나 이곳에서 불편한 눈길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염려 또한 내 오만이였다. 편한 저녁 자리였다.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던 그는 로스쿨 진학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춰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고 말했다. 생식능력 제거 수술이나 외부 성기 성형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증명’ 받지 못하는 현실은 그에게 막연한 공포가 아닌 촘촘히 짜인 행정기관의 폭력 같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유방절제술을 받고 남성 호르몬 요법을 했지만 외부 성기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 남성의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했다. 하지만 호르몬 치료나 외과적 수술을 전혀 하지 않은 트랜스 여성의 성별 정정신청이 허가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마냥 한탄하지 않았다. 장학금을 받는 덕택에 졸업을 바라볼 수 있는 대학이라는 울타리, 성년이 된 후 이뤄진 커밍아웃으로 가족과 연을 끊어도 자립할 수 있었던 기회를 운 좋게 얻었다며, 변호사가 되어 자신과 같은 고민을 지닌 이들 곁에 서고 싶어 했다. 세상을 확 뒤바꿀 수는 없어도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살 수 있지는 않겠냐는 물음에 다시 부끄러워졌다. 조금 더 낮은 곳에서 허리를 굽혀서 들겠다는 초

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저 하루를 살기 위해 발제하고 취재하는 일상이었다.

밥을 먹는 내내 조곤조곤 이야기 하던 그의 목소리가 높아진 건 헤어지고 나서였다. 식당 근처 게스트 하우스를 예약했다는 그를 바라다주고 돌아오는데, 전화가 걸려 왔다.

“기자님, 제가 숙박을 거절당했어요.”

서둘러 다시 게스트 하우스 앞으로 갔다. 자초지종은 이랬다. 게스트 하우스의 매니저는 그에게 대뜸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했다. 1로 시작하는 번호를 보고는 “당장 나가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1인실 숙박도 안 되냐는 물음에는 “방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는 것. 남녀 모두 머물 수 있었던 게스트 하우스에 그를 위한 방은 없었다. 무더웠던 그날 밤, 그는 어깨를 감싸며 오들오들 떨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나는 씩씩거리며 게스트 하우스 매니저를 비난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남녀 모두 숙박이 가능한데 왜 트랜스젠더는 안되냐고 가서 항의하고 오겠다는 나를 그는 “괜찮아요”라고 타일렀다.

그래, 일단 그가 실 곳이 필요했다. 급하게 앱을 켜 근처 호텔을 예약했다. 혹시나 싶어 내 이름으로 예약하고 키를 받아 방 앞까지 바라다봤다. 프런트에서는 그의 성별을 궁금해 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다. 당연한 이 상황이 고맙게 느껴졌다. 모든 일상에서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그의 말이 이렇게 눈앞에서 펼쳐졌다. 남녀로 구분된 화장실이 불편해 집 밖에서 화장실 이용을 최소화하는 트랜스젠더의 일상을 기사 밖에서 누군가의 삶으로 알게 됐다.

호텔 밖을 나오며 게스트하우스의 매니저를 떠올렸다. 과연 그 혼자의 편견이었을까. 어쩌면 그 역시 남성처럼 보이지만 여성이라고 말하는 누군가를 처음 대면했을 수도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을 수도 숙박을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목소리로 성별을 재단한 나와 게스트하우스 매니저의 태도는 얼마나 다른 걸까.

함께 사는 삶, 차별하지 않는 삶. 구호는 명쾌하고 선명하다. 많은 정치인이 이 구호를 외쳤고, 나 역시 수도 없이 기사로 썼다. 그런데, 일상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무심하기에 무례한 권력이 작동하는 경계선이 여전히 도처에 있었다. ♡